

조국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현안 협력 역할” 강조

“선거 과정 내세운 정책·비전 맞다고 호남 민심 선택해” 광주시 현안 간담회...5·18 헌법 전문 수록·AI 등 논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3일 “호남 유권자들이 4·10 총선 의미와 목표,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총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여러가지 정책과 비전이 맞다고 호남민심이 선택해 주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경고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 분명히 할 것”이라며 “단순히 선거 과정에 구호를 외치고 빠지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 민생과 경제, 복지 문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공천 갈등에 실망해 조국혁신당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민주당 내부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며 “광주의 경우 현역 8명 중 7명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공천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 조 대표와 함께 한 서양진 정책위의장은 “광주·전남에는 AI(인공지능) 산단이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준비돼 있고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2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잘 가동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전남·북이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광주·전남도와도 협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참배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시는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결 것을 건의하는 한편, 광주시가 집중

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지난해 광주공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의 합이까지의 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공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도 강

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엔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며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제도 개선을”

도, 피해를 기준 완화·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건의

전남도가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에 대한 보험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23일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를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 약관에 시설원에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를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를 10%를 초과해 재이양(재작)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태풍,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나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 및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일조량 감소 평년 대비 25% 이상 시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조량 감소에 따른 시설작물 피해가 14년 만에 재대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겨울(12-2월) 일조량이 약 25% 이상 감소해 멜론, 딸기 등 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받아 현재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김재정 기자

전국소년체전 응원단 1만7천여명 운영

자매결연도시 경기 관람·위문 등 남도의 정 나누

전남도는 23일 “오는 5월 개최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만7천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9천여명의 실·국, 22개 시·군 자매결연 응원단, 도내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7천300여명의 학생응원단, 주 개최지 목포시민으로 구성된 700여명의 시민응원단 등이 대회 관중석을 함께 채우며 대회 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응원단은 경기장별 자매결연 도시 선수단의 경기 관람과 열띤 응원을 펼치고 선수단 숙소 위문 활동으로 따뜻한 남도의 정을 나누게 된다.

또한 경기장 입·퇴장 질서, 선수단 응원, 경기 관람 후 주변 정리 등 전남도원, 경기 관람 문화를 전국에서 모인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응원단이 경기장을 방문해 응원 수건, 종이 째깍이 등 응원 도구를 활용해 열띤 응원을 펼치도록 응원 용품을 제작해 응원단체에 배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자매결연 응원단 운영계획을 세운 후 응원단 모집, 응원용품 제작 등 체전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용수 전남도 체전지원단장은 “그 동안 맘 졸이며 열심히 연습했던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도록 응원단 구성 등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회 기간 선수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25일부터 28일까지 22개 시·군 50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14일부터 17일까지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 기간 2만2천여명의 선수단·임원이 전남도를 방문한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여순사건실무위, 희생자·유족 615건 심사

명예회복위 심의 요청키로...연내 총 5천건 조사 목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23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10차 실무위원회 열어 희생자·유족 615건을 심사하고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결정

을 요청키로 했다. 심사를 통과한 615건은 ▲진실화해위원회 규명사건 등 공적 증빙 첨부사건 330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275건 ▲추가 유족신고 10건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실무위원회는 중앙위, 국회, 유족과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고 실무위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사실조사단 전문성 강화 등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노력키로 다짐했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희생자·

유족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연누계 총 5천건의 사실조사 완료목표로 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명장환 행정부지사는 “제2기 실무위원회가 출범해 올해 첫 실무위 심사를 마쳤다”며 “특별법 시행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희생자·유족이 온전한 명예회복의 결실을 보도록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분야(03.전기시험 03.012 소프트웨어시험)



<성적서 종류>
KOLAS시험성적서
일반시험성적서

- ✓ 성적서 발행(KOLAS시험성적서, 일반시험성적서)
- ✓ 전라남도 기업에 한하여 최대 20% 비용 할인 혜택
-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한해 최대 30% 비용 할인 혜택

☎ 061)339-6931~2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77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본원)